

## 사회적 담론공간 분석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김예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

본 연구는 사회적 담론의 형성, 발전, 변화 과정을 공간적 모델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상이한 담론들 간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권력관계의 복잡성과 유연성, 역동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담론 공간은 내부/외부라는 차별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개별담론이 사회적으로 지각, 인지, 통용되기 위해 공간 내부에 진입해야 하며, 권력 획득 정도에 따라 사회적 담론공간 내에 중심부/주변부라는 불균등한 위치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회적 담론공간에서는 다차원적인 권력관계가 다방향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후기 자본주의의 실제 정치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치권력과 신보수주의적 문화권력이 대두하면서, 사회적 담론공간이 개인주의적 소비주의나 획일적인 집단주의로 동질화되고 양분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더불어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문화적 시민권이 사회적 담론공간을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시권력과 거대권력 혹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충돌하는 권력의 중첩지점, 즉 지배권력 대한 타자적 위치가 저항적인 개별담론들이 성장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타자의 담론이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전달될 수 있는 민주적인 담론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담론, 공간, 권력, 문화적 시민권, 타자적 위치

---

### 1. 글을 시작하며

이 글의 목적은 사회 공공 커뮤니케이션 장에서의 담론권력 형성 및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지배적 담론질서에 대안적인 민주적 커뮤니케이

선 양식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규범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언어는 사회적으로 학습되며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정립된 언어코드 안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전제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규범적 해석의 이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즉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문화와 언어가 존재하고 이들은 지배적 코드를 벗어남으로써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Butler, 1997).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정치사회적 관계, 즉 사회적 담론 형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공간적 해석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의 공간적 해석방법이란 개별담론과 사회공론, 담론 공간 내의 권력문제, 담론 정치의 변화 과정 등에 관련된 문제들을 위치와 이동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적인 개념들로 치환하여 검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공간적 해석 방법의 잇점은 첫째, 사회담론의 장에 대한 전체적 조망을 함으로써 특정 담론의 생성, 발전, 쇠퇴에 주목하는 근시안적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둘째, 다중적인 담론권력 작용들 간의 역동적 관계를 가시화할 수 있으며, 셋째, 사회담론의 장의 개별적인 위치마다 특정한 형태로 전개되는 권력작용들을 변별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담론의 장의 형성 및 갈등 관계 그리고 변화 과정 등에 관련된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의 네 가지 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전제들을 현실적인 사회담론 과정에 적용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첫째, 사회적 담론공간 경계문제, 즉 담론 공간의 내부/외부를 정의하고, 둘째, 사회적 담론 권력들 간의 갈등 문제, 즉 담론 공간의 중심/주변 구조를 검토하며, 셋째, 사회적 담론공간 내/외적으로 작동하는 권력의 양식을 분석하여, 넷째, 문화적 시민권 문제를 사회적 담론 공간의 형성과 재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겠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현재 한국 공론의 장에서 문제시되는 대상으로

서의 자유주의와 보수주의(혹은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담론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비판적 담론들이다. 이들을 분석하는 목적은 특정담론이나 담론권력의 정치적 색깔을 판별하는 데에 있지 않다. 오히려 다양한 종류의 담론들이 긴장과 투쟁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지각, 인식되고 특정한 위치에 고정되거나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등의 변화를 겪는 유동적 과정을 보임으로써, 담론공간을 고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상이한 담론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존의 담론차별구조가 극복되고 신생적인 담론질서가 출현하는 과정은 어떠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담론적 역동성이 문화정치 현실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 2. 사회적 담론공간의 공간성 이해

### 1) 사회적 담론공간의 내부와 외부

최근에 한국사회에서 진행되었던 문화논쟁들 중에 개별담론의 돌출과 이러한 돌출이 기성 담론구조와 충돌하여 빚어지는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서동진은 한국 성정치학의 변화기류를 홍석천씨의 ‘커밍아웃’을 계기로 검토한다(서동진, 2000). 그는 홍석천 씨의 커밍아웃 선언에 대해 공공매체들이 의외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점을 상기하며, 문화적 차별구조의 폭과 유연성이 과거의 그것보다 확대되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서동진의 요지는 시민사회가 표면으로 내세우는 관용의 태도의 이면에 자리잡은 정치권력적 작용을 밝히는 데에 있다. 커밍아웃의 행위가, 그 주체로 하여금 동성애라는 성적

인 속성을 자신의 규범적 정체성으로 스스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이름지음으로써 사회적으로 주어진 성적 정체성을 스스로 행하는 대리자적 기능을 수행케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였다. 그렇다면 커밍아웃 행위의 의의는 사회관용의 폭이 넓혀져 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있지 않다. 대신 커밍아웃을 통해

동성애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한 사회적 담론들이 투입되고 대립하는 하나의 싸움터를 만들어낸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착각을 반복하면서 동성애의 경계를 긋는 듯한 싸움을 반복한다(서동진, 2000, 360쪽).

이 인용에서 문화 정치학적 논쟁과정이 표현된 공간적 은유에 주목하여 보자. 공간적 은유는 담론행위가 구성하는 문화 공간의 역동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Katz & Smith, 1993). 공간적 은유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문화적 정서, 사상과 사고와 같은 비물질적 요소들이 문화 정치학의 실제 현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공간적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담론공간의 다층성과 다방향적인 역동성을 적절히 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홍석천이 동성애임을 선언하는 행위는 커밍아웃(coming-out)이라는 행위로 말하게 된다. 서동진의 정의에 따르면 커밍아웃은 ‘동성애자나 성적 소수자가 자기 정체성을 긍정하는 다양한 단계, 다양한 종류의 행위를 아우르는 말’이다. 그럼으로써 따르는 ‘자기 자신의 성정체성을 둘러싼 지속적인 동요와 대질하는’ 지속적인 과정까지도 커밍아웃은 포함한다(서동진, 2000). 흥미로운 것은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형성하는 공간성이다. 커밍아웃의 단어 자체가 방향성(‘가다’가 아닌 ‘오다’)과 위치성(‘안’이 아닌 ‘밖’)을 내포하고, 이러한 요소들은 성정체성 질서가 사회적으로 구조화되고 작용되는 역학적인 과정을 암시한다.

커밍아웃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커밍아웃의 안과 밖이 전제로 삼는 경계선은 무엇일까. 어떠한 구분선을 넘어 ‘들어오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는 커밍아웃 행위로 인정되는 걸까.

커밍(오다)와 아웃(밖)과 같은 어휘들은 성질서 내에 존재하는 비정상적 사적 영역과 정상적 공적 영역 간의 대립적인 공간성을 전제로 한다. 비밀은 그 경험적 사실성이 사회적으로 부재하는 이야기이다. 반면 공공연한 비밀이란 사회적으로 그 경험적 진실성은 인정되지만 담론적 진실성이 부정되는 이야기이다. 공공연한 비밀의 주체는 경험의 구체성과는 무관하게 담론 공간 경계선의 외부에 자리잡게 됨으로써 담론질서의 타자로 남게 되는 것이다(Julien, 2001).

동성애의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규정되기 위해서 경험적 사실로서의 동성애가 사회적 담론의 형태로 변형되는 것이 필요하다. 경험적 지식이 사회 의미영역에 진입하기 위해 담론의 형태로 번역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험이 사회적으로 담론화될 때 비로소 그 경험의 주체가 담론의 주체로서 사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경험적 차원과는 별개로, 담론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기존의 담론질서 내에서 금지되었던 개별담론이 사회적 존재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담론공간의 경계선이 확장되거나 보다 탄력적이 되어서 새로운 요소의 개입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 담론공간의 범위가 담론 주체의 사회적 정체성 획득 여부를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그 경계선이 고정적이기보다는 유동적이어서 담론 주체의 사회적 정체성 역시 역사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의 동성애의 예에서 지배적 담론 권력은 보수적 성담론 질서이다. 동성애가 사회 담론의 장에서 별다른 파장없이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은, 성담론의 사회적 공간의 확장되어 기존의 성질서와 관련해서는 외부적

타자로 자리매김되었던 주체가 담론 공간의 내부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담론 공간의 외부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억압의 권력이 작동하는 반면 사회적 담론공간의 내부에서는 행위 및 표현에 대한 자유가 허용된다. 따라서 담론 경계를 넘어섬으로써, 과거 담론질서 내에서 비가시적이었던 타자가 자기 재현을 할 수 있다. 기존의 지배적인 성질서에 반대적인 담론들이 사회적으로 생산, 통용된다는 점에서 성담론 질서가 보다 자유로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담론 공간의 내부가 무한한 자유의 공간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예컨대 푸코의 미시권력과 생체권력 개념은 보이지 않는 지배권력이 개인의 몸과 행위를 통해 재생산되는 경로를 알려준다(Foucault, 1980). 그리고 최근 미시권력적인 측면에서, 특히 개인의 육체를 정점으로, 한국의 정치권력을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최근 진행되어 왔다. 이들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폭력의 형태로 행사되었던 정치권력과 차별적인 권력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미시적인 권력 구조를 논하기 전에, 이어지는 글에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담론의 경계 내부 즉 공간의 내부적 구조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나가겠다.

## 2) 사회적 담론 권력들간의 갈등 문제: 담론공간의 중심과 주변

담론공간의 경계선이 사회 구성원의 발언 가능성을 결정짓는다는 점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다. 적어도 주체의 발언이 개인적인 독백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 공론의 장에서 지각, 인지되어 의사소통되기 위해서는 개별담론 주체들이 담론공간의 경계선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론의 장의 내부에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담론이 동등한 위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개별담론 집단들은 담론주체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나

태도, 행사하는 권력의 크기에 따라, 담론공간 내에 특정한 위치를 차지한다. 많은 캠페인 현상들이 시사하는 바는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급진적인 경향을 띠는 담론들이 사회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파함으로써 담론의 사회적 파장을 넓히고 사회적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일단 그 담론 주변부에 위치한 담론집단들과 배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담론공간의 권력 분배 양상은 그 담론의 정치적 진보성/보수성과는 독립적인 것으로 보인다. 담론권력의 자기팽창욕구가 자유주의 보수담론으로 전개되는 방식에 대해서 뒤에 상술하게 될 것이고, 담론구조 형성 과정이 그 담론의 정치적 진보/보수성과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여기서 담론공간의 불평등한 권력분배 양상과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사례는 안티조선운동이다. 보다 정확히 구분하자면, 안티조선운동 그 자체라기보다 안티조선운동을 둘러싼 담론들 간의 권력분배 양상이다.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 안티조선운동 주체 측은 그 운동을 정치보수파에 대한 대항운동이고 한국언론의 민주화를 지향한 진보적 시민운동으로 정의내렸고 이러한 정의는 시민사회로부터 상당한 동의를 받았다. 이에 상응하여 담론 권력적인 면에서 본다면 안티조선운동은 담론 공간 중심을 차지하는 하나의 권력체로 성장하였다. 이것은 안티조선운동에 이념적으로 동의했으나 담론 실천적으로는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던, 안티담론 공간의 주변부 집단들의 발언에서 드러난다.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지 못해’ ‘안티조선 관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문화 평론 저널 《당대비평》의 발언이 하나의 예이다.<sup>1)</sup>

1) 안티조선운동과 당대비평 간에 장기간에 걸친 논쟁이 이루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고의 목적이 개별 정치적 담론들 간의 갈등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는 사회적 담론공간의 전체적인 지형도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양 입장들 간의 논쟁 과정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였다.

《당대비평》의 문부식 주간의 인터뷰가 《비평과 전망》 3호에 실렸고 이 중 안티조선비평에 해당되는 부분이 발췌되어 인터넷 토론 웹사이트인 자보에 실렸다(변희재, 2001). 이는 안티조선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따라서 당대비평에 크게 실망했던 네티즌들을 위한 전자자보인 셈이다. 혹은 안티조선운동의 사이버적 담론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이데올로기와는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담론들 간의 권력 관계에 관련하여 흥미를 끄는 부분은 다음의 대목이다.

문부식: ‘한국 사회의 가장 막강한 언론 권력인 조선일보의 안보 상업주의와 냉전 수구 논리와 싸워야 한다는 것은 당대비평이 품어온 가장 절박한 문제 의식을 구성’한다고 했고, 이에 반대하는 안티 조선의 문제의식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은 조금이면서 왜 안티조선은 심하게 비판하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조선일보와 안티조선의 문제의식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방법론의 문제였습니다. (...)

비평과 전망: 궁금한 것은 왜 그럼 《당대비평》 2000년 가을호에서 그 정도의 입장조차 충분히 밝히지 못했는가이다.

문부식: (...) 비판을 넘는 접점의 제시, 다층적 연대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안티조선 관계자들이 방법론비판에 격분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나친 과잉입니다. 되풀이 하지만 방법론의 반성은 연대의 틀을 넓히는 단서이자 기점이 됩니다.

사이버 공간적인 면에서 볼 때 안티조선운동은 ‘우리모두(www.urimodu.com)’라는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용어는 안티조선운동 담론이 의도하는 권력공간의 특성을 알려준다. 안티조선운동을 중심으로 특정한 형태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파생되었다. 사회구성원들은 기존의 정치, 사회, 문화질서와 변별적인, 안티조선운동 담론에 고유한 주체위치를 설정할 것을 요구받는다. 즉 안티조선 담론을 중심으로



안과 밖이라는 경계선이 그어지는 것이고 그 공간 내부에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치성이 규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의 위치지움은 안티조선운동 담론이 가지는 권력적 효과이다. 당대비평 비판에 대한 문부식의 응답 역시 공간적 은유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의 ‘점점’ 이나 ‘다층(의 연대)’과 같은 개념들은, 안티조선운동 담론이 충돌이나 적층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정치학 공간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더불어 질문자의 ‘당대비평이 충분히 비판적이지 않음’이라는 지적은 안티조선의 운동과의 일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평가적 기준이 형성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즉 일정한 담론 공간 내 담론권력의 중심부와 주변부가 생성되었던 것이다.

### 3) 담론권력의 공간적 이해

앞에서 제시된 사례를 기반으로 사회적 담론공간의 내부와 외부, 그리고 공간 내부에 형성되는 중심과 주변에 관한 논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체는 사회적 담론의 공간 안에 위치지어져야 한다. 경험적 사실이 담론적 사실로 변형됨으로써 그 주체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개별담론이 형성, 발전하여 그 담론 특유의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개별담론은 자기 확장 욕구를 가지며, 그 담론 권력 질서 내 중심부와 주변부의 구분을 파생시킨다.

앞의 사회적 담론공간의 논의에서 문제시되는 점은 담론의 자기 권력 확장 욕구의 비민주성이다. 각 담론주체들이 자기 팽창 욕구를 실현하고자 할 때, 과연 평등한 대화적 관계가 성립,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개별담론의 다양성과 사회적 담론공간의 민

주성을 연결시키려는 철학적 사고를 참고할 수 있겠다. 이러한 철학적 접근방법들은 사회적 주체의 정체성이 자기 담론의 내용과 형태 상의 다양함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또한 담론형태와 폭이 다양할 수 있는 이유는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위치에 자리잡은 주체가 그 위치에 고유한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데리다는 주체와 언어와의 상호형성적인 관계에 대해, 주체의 정체성(identification)은 자신의 자서전적인 역사의 흐름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Derrida, 1998). 이 때 구성되는 언어구사행위는 단일언어도, 이중언어도 혹은 다언어도 아니며, 처음부터 위치를 정할 수 없는 경험적 언어이다.<sup>2)</sup> 개별담론의 주체로서의 ‘말하는 나(speaking-I)’는 비가산성의 독자적인 언어(incalculable monolanguage)를 구사한다. 독자적인 자기담론의 주체는 실재사회의 담론 공간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어느 사회든지 체계적으로 정렬된 담론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담론의 독자성을 강조했다고 하여 데리다가 원자화된 담론들 간의 대화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사회의 규범적인 담론 권력과 경쟁하고 갈등하는 개별담론의 잠재성, 즉 사회적 담론 공간의 투쟁적 역동성에 있다. 개별담론의 주체가 계급적, 민족적, 성적인 요소들을 이유로 해서 지배권력의 규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규범들에 완전히 종속적이지는 않다. 규범적 담론 권력에 대항하여 특정한 개별담론들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집단을 - 국가적, 계급적, 성적, 언어적 규범에 의해 규정된 공동체와 구별하여 - 담론적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이 공동체의 성립근거는 성원들이 살고, 대화하며 공유하게 되는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험들이다. 담론적 공동체를 형성하

2) 이하 데리다의 논의에서 글의 맥락에 따라 ‘언어’와 ‘담론’이라는 용어들을 유동적으로 사용하였다.

는 주요원칙은 본질주의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그들 간에 전개되는 대화적 ‘과정’인 것이다.

데리다의 개별담론 개념이 시사하는 바는, 담론공간을 위협하는 요소는 담론들 간의 투쟁이 아니라 오히려 담론공간을 획일화, 정렬화하려는 규범적 권력이라는 점이다. 규범적 권력은 계급, 인종, 성별과 같은 사회인종학적 요소들로 기준으로 하여 개별담론들의 위치를 고정시키려 한다. 반면 개별담론 주체는 유동적이고 상호역동적인 담론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바바 역시 규범적 담론권력의 폭력적 효과가 개별자들의 사회적 위치를 고정시키려는 획일성에 있다고 본다(Bhabha, 1994). 식민주의적 담론 질서가 식민주의적 주체형성에 가지는 형성적인 효과에 주목하면서, 바바는 사회의 스테레오 타입적 이미지의 반복적인 사용이 타자(식민지인)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배권력이 지각하고 인지하는 타자의 이미지는 이미(허구적) 환상의 산물이므로 이 지배권력이 생산하는 타자의 이미지 역시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지식일 리 없다. 오히려 식민주의적 담론은 실재를 ‘반영’한다기 보다 타자에 대한 환상적인 이미지를 실제로서 ‘형성’하는 것이다. 허구적 이미지에 의한 사실의 구성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실재가 절대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면, 스테레오 타입의 문제점은 그것이 타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왜곡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이미 옳음과 옳지 않음을 판단할 사실의 근거가 환상이므로) 특정한 환상을 사실로 굳히는 정형성(fixity)에 있다.

바바의 식민주의적 지배권력과 타자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권력과 지식의 규범적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환상이나 쾌락과 같은 심리적 요소를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바바는 식민주의자들은 식민지인에 대한 시각적 욕구를 그들에 대한 페티쉬적인 스테레

오 타입 이미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으로 충족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피식민주의자들의 즐거움 부분에 있다. 피식민주의자들이 어떻게 식민주의적인 지식권력관계와 시각적 즐거움의 질서를 살아가는가하는 문제에 관해, 바바는 피식민주의자들이 식민주의적 담론 체계에 부딪칠 때 ‘전복적인 간극(subversive slit)’이 생기고 이 틈으로부터 반동적 힘이 형성된다는 다소 추상적인 대답을 하는 데에 멈춘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충돌 지점에 있을 것이다. 즉 피지배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배자적인 권력/지식/즐거움의 질서를 행하면서도(기성 권력체계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하기 않기를 원한다면 피지배자는 어느 정도의 기성질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전복적인 잠재력을 내포한 담론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어떠한 방식으로 타자의 ‘전복적인 간극’을 환상으로 엮어진 식민주의적 담론권력 질서로부터 구분지을 수 있을까?

식민지적 질서를 벗어나 현대 시민사회의 담론공간을 대상으로 할 때 바바의 담론이론은 보다 적극적인 문제들을 제시한다. 즉, 다양한 개별 담론들이 지배적 담론질서 ‘안’에서 파생시킬 수 있는 정치적 효과에 관해 질문해볼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하였던 바; 저항적 담론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기 위해 사회담론 공간 외부로부터 내부로 이동해 들어오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전입이 반드시 지배담론 권력 안으로의 편입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심으로부터 주변에까지 펼쳐지는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상호투쟁적인 관계 - 바바의 말을 빌자면 ‘전복적인 간극’을 형성할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개별 담론이 지배적 담론권력에 완전히 복속되지 않고 사회공론의 장으로부터 추방되지 않으면서 저항적 담론을 계속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위치를 사회적 담론 공간 내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담론 공간 밖으로 소외된 타자가 아닌 담론 공간 안에서 작동하는 상호 작용적, 상호투쟁

적인 타자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개별담론 주체가 지니는 자기모순적 사실은, 주체가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타자로부터 자립적(autonomous)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타자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적어도 구별대상으로서의 타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주체와 타자와의 관계는 상호 부정적이면서 의존적이다. 나아가 주체와 타자의 관계는 상호교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는 타자를 통해서만 구성되기 때문이다(Fuss, 1996). 담론의 주체가 타자와의 관계맺음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언어와, 언어의 교통 및 전달 과정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중요시된다. 주체와 타자의 교류 과정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즉 정체성을 형성하고 재현하는 구성하는 요소이자 과정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문제시된다. 타자를 전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은, 앞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즉 담론권력의 자기확장욕구가 대화적 질서와 가지는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담론권력이 자기형성을 위해 타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론은 담론권력의 무제한적인 자기팽창욕구를 제지하기 위한 윤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여기서 제시되는 윤리적 주체에 관한 사고는 레비나스와 데리다를 비롯한 후기구조주의자들에 의해 전개된 주체성 형성에 대한 이론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sup>3)</sup>

레비나스에 있어 주체-타자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적 원리는 주체의 타자에 대한 책임성이다. 주체의 타자에 대한 책임성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인 것으로 설명된다(Levinas, 1989). 즉 주체가

3) 이들은 유럽의 다양한 철학적 전통들, 즉 하이데거의 존재론, 후셀과 폰터의 현상학 등의 비판적 재읽기를 통해, 헤겔의 절대적 주체(대문자 I) 개념과 구별되는, '살과 피로 이루어진 그래서 배고픔을 느낄 줄 알고, 먹는 것을 즐길 줄 아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나(me)'에 대한 윤리학을 피력하였다(Critchley, 1999, p. 63).

타자를 마주보고(facing), 타자의 부름에 응하고(responding), 타자를 환영(welcoming)으로써 유아독존적인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은 타자와 관계를 안에 들어서면서 익명적인 존재가 아닌 특정한 ‘나(me)’로 존재할 수 있다. 주체가 사회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형성되는 것이다. 주체가 유일하다면 이것은 주체가 절대적 진리의 대변자로서의 주체(대문자 ‘I’)이기 때문이 아니다. 주체가 사회적 교류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의미를 구축해간다는 점에서 유일한 것이다.

레비나스의 주체 개념은 타자에 수동적이며 무조건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레비나스는 타자에 대한 수동성을 고통스러운 관계로 보지 않고 주체가 타자에게 향해 가는 행위,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실현하는 능동적인 행위인 것으로 보았다. 결국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윤리적 주체란, 타자와의 대화적 커뮤니케이션 작용을 통해 자아의 껍질을 벗고 사회적 관계 안에 자신의 존재를 열어나가는 주체인 것이다. 주체의 정체성은 미리 주어지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삶의 과정을 통해 간주간적(intersubjectivity) 교통 상태를 거치며 형성된다. 레비나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의 소외적 삶은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의미를 생산해나기 위한, 정체성 형성의 예비 조건인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주체 형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라는 견해는 데리다의 윤리관에서 더욱 발전한다.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의 형성이 마치 ‘잡’과 같은 자아적 세계로부터 벗어나 타인과 고유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설명되었다면 데리다적인 의미에서의 윤리적 주체는 사회적 획일성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짓는 주체로 정의된다. 이러한 주체를 커뮤니케이션적인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지배권력적 언어(the master's language)의 획일성을 거부하고 자신의 개별자적인 언어를 창출해나가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Derrida, 1998). 지배권력적 언어(the

master's language)는 담론적 권력을 행사하여 타자의 언어를 통합함으로써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동질화를 구축한다. 그래서 지배권력적 언어는 본질적으로 '식민주의적'인 본성을 지닌다. 반면 개인의 언어는 개별적 역사에서 자라난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지배권력적 언어와 대조적으로 개별언어는 "비획일적이며 독창적이다(unique without unity)" (Derrida, 1998, p. 68).

데리다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쓰기(écriture)'로 대표된다. 데리다의 쓰기개념은 담론 주체의 자기재현적 행위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데리다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개인 언어가 가지는 자기 재현적 기능에 대한 정치적 함의를 나타낸다.

개별 언어적 시스템은 규범언어와의 접목, 탈형, 배척을 통해 규범언어를 변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규범언어는 개별언어에 의해 무정 부상태나 탈규제적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개별언어적] 제스처가 증가할 수록 더욱 그 가능성이 커진다. 나는 이러한 언어적 제스처를 쓰기(écriture)라고 부른다. 그 양태는 구어적일 수도, 음성적일 수도, 그리고 음악적일 수도 있다. 리드미컬할 분산성을 지닌 '쓰기'는, 다양성(multiple)을 저해하는 단일언어 체제를 변혁할 잠재성을 지닌다(Derrida, 1998, p. 65).

데리다는 담론주체의 정체성이 지배담론의 식민주의적인 권력과 투쟁하여 자기 재현적인 담론을 구성해내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레비나스와 데리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관심사는 규범적 정체성을 해체하는 개별적 담론 활동의 잠재적 전복력이다. 하지만 비규범적 담론의 잠재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개별적담론이 사회 커뮤니케이션 과정 안에서 과연 쓰여질 수 있을지의 가능성 여부와, 쓰여질 경우 그 범위와 방식에 관한 문제들이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우선 사회적 차별 구조로서의 담론공간을 분석하

여 상이한 담론들 간에 구성되는 공간적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겠다. 그리하여 개별담론이 지배담론 권력에 경쟁적 혹은 투쟁적으로 사회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 3. 문화적 시민권

#### 1)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그 오묘한 결합

현대 시민사회의 담론공간 내부를 유지하는 주요원리들 중의 하나는 표현과 행위의 자유에 대한 보장 원칙이다. 즉 공익을 해치지 않는 한 담론주체의 자기권력확장이 허용된다. 대부분의 국가권력에 의한 가시적이고 폭력적인 검열통제 장치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대신 개인들의 자기검열이나 시민사회 자율적인 공적규제를 통해 사회적 담론공간의 질서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학자들은 시민사회의 가시영역으로부터 소실된 국가권력이 지극히 미시화된 형태로 사회저변에 침투해 들어가거나, 혹은, 세계를 향한 탈국가적 거대권력으로 성장한다고 설명한다. 국가권력이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벗어나 구심적 혹은 원심적 방향의 권력작용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구심적 권력에 대한 지적을 권경우로부터 얻을 수 있다(권경우, 2002). 권경우는 80년대 문화운동이 거대 정치구도 안에서 전개되었던 반면 1990년대 문화운동은 ‘대중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중들의 자기재현의 욕구가 다양한 주제들로, 다발적인 방향으로 분출되는 경향에 상응하여 그러한 욕구들에 대한 검열장치도 다층다각적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국가권력이 독점하고 있던 문화검열 기구가 시민사회의 보수 집단으로 분산됨에 따라 ‘국가



권력과 보수적 시민단체가 지배하는 지배권력과 지배이데올로기를 유지하기 위해 절묘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권경우, 2002, 156쪽). 검열의 방식이 국가권력이라는 단일적이고 억압적인 것으로부터 '일상'의 도덕, 가족 종교, 애국심과 같이 비가시적인 이데올로기 형태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권력의 미시화라는 맥락에서, 임지현은 '일상적 파시즘'의 개념을 제시한다(임지현, 2000, 30쪽). 일상적 파시즘은 과거의 군부와 같은 가시적 정치기구의 범주에서 벗어나 '교묘하게 정신과 일상을 조작하는 고도화'된 권력장치이다. 지배적인 권력기구가 부재하지만 권력은 이미 개인과 집단의 육체와 정신에 각인되어 있다. 그래서 억압적이고 강요적인 권력체가 부재해도, 개인은 자신의 무의식적 혹은 능동적 행위를 통해 가부장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혹은 제국주의적 환상에 기반한 보수적 권력을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군대식 대열을 서서 국민의례를 행하는 초등학교 졸업식장, 기성세대에 반항적인 가사를 외치지만 막상 그 랩퍼들이 권위주의적 행위를 재연하는 록 콘서트장, 조종사와 비조종사 간에 보이지 않는 권력다툼이 일어나는 비행기 조종실 등이 미시적 파시즘이 작용하는 공간의 예들이다.

한편 원심적 국가권력에 대한 인식에서, 문화정치학적 신보수주의는 경제적 세계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와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비판 받는다. 이러한 시각은 강내희의 신자유주의 담론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데, 그는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제 정책상으로는 자유주의의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정치 문화적으로는 자유주의와 대립되는 신보수주의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바로 이런 모순 혹은 탈구 현상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신자유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 전략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다(강내희, 2001, 162쪽).

담론의 공간구조라는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대한 비판적 담론들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현상은, 육체에 작용하는 미시적 힘과 세계화를 향한 거대자본 질서라는 양극단적인 형태의 권력들이 고리처럼 연관되어 설명된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경제 원리와 신보수주의 문화 권력이 개인의 육체를 매개로 하여 맞물려있다. 따라서 사회 공론장의 행동주체가 시민이지만 시민의 육체가 이미 보수권력에 의해 장악되어 있으므로, 시민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는 보수주의 권력의 재생산 행위에 다름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에 대한 비판적 담론들이 가지는 한계점은, 육체에 관련한 미시적 권력구조와 세계화에 관련한 거시적 권력구조에 대한 양극단적인 권력구조에 집중함으로써 사회적 담론공간의 역동성에 대한 전망을 상실하기 쉽다는 점이다. 이는 문화 담론의 사회적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담론정치 영역이 개인적 육체의 차원으로 축약되거나 세계화를 향한 요구로 팽창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의 사회적 공간성에 관한 의식이 사상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권력과 보수주의 권력,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적 담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공간으로서 사회 공론의 장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욕망과 의지가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과정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치의 효과로 파악하는 브라운의 견해를 참고할 만하다(Brown, 1995). 그녀는 국가권력이 본질적으로 양면성이라고 본다. 국가권력이 규율주의적 차원과 자유주의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적 담론은 (개인의) 정치적 정체성을 본질적으로 사적인 관심사로 환원하고, 규율적 권력은 사적 관심사를 사회의 규범화된 정체성에 따라 획일화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권력의 사영화(privatization)와 보수주의 권력의 동질화(homogenization) 작용은 신자유주의 정부권력이 개인적 정체성을 규제하기 위한 상호보완적인 정치기술인 것이다.

자유주의/보수주의, 가시적/비가시적 정치 권력, 미시화/거시화된 권력작용이 복합적으로 혼합된 공간으로서 사회적 담론공간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육체라는 미시 권력체와 세계화의 환상이 수반된 거시 권력체의 충돌공간으로서의 사회적 담론공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형태와 방향의 지속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권력행사의 발원지와 발전경로, 투쟁영역, 그리고 권력에 대한 저항의 장소가 (미시권력/거대 권력, 구심력과 원심력의 접점으로서의) 사회적 공간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에서도 역시 담론공간의 문제, 담론의 사회적 공간의 문제가 발견된다. 담론 공간의 사회적 공동화 문제를 문화의 시민권이라는 개념틀로 논해 보고자 한다.

## 2) 문화적 시민권: 차별과 포용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적 정부권력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영국 대처수상이 집권했던 시기의 사회-문화 담론들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그녀의 발언이 증명하듯, 대처수상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극단적인 개인중심주의적 성격을 띠었다. 대처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원칙은 평등주의적 수사학으로 표현된다. ‘누구에게나 원하는 대로’가 자유주의 이상을 표현하는 평등주의적 수사법의 가장 좋은 예이다. 또한 경제적 자유주의와 문화적 보수주의는 뛰어난 결합력을 발휘한다. 대처 수상 집권 시의 영국의 예를 다시 들여보면,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과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결합하여 국가 행정적 차원과는 별개의 정치문화학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 질서를 형성하였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극우파 정책 결정자들과 지식인, 우파 언론들이 결합하여 보수주의 담론의 사회적

실세를 구성한다(극우 이데올로기 전파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저널들로 *Centre for Policy Studies, Social Affairs Unit, Salisbury Review* 등을 들 수 있다). 우파담론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재현하고 이것이 그 사회의 보편적 사실인 것처럼 사회구성원들에게 전파하였다. 예컨대 우파담론의 시야에서 납세자들 — 즉 어느 정도의 사적 재산(주택과 직업)을 가진 적격한 시민들 — 은 자신이 내는 세금이 복지 정책 등에 의해 비납세자들 — 즉 노동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고 주거지를 소유하지 않은 부적격 시민들(이민족, 동성연애자, 미혼모 집단등) — 을 위해 쓰여지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는 것으로 그려진다. 시민권이 사회의 차이구조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배타적 시민권을 중심으로 일반시민/비정상인(people/non-people), 우리/그들(us/them)이라는 이분구조가 생겨났다. 이와 병행하여 ‘시민’(특수한 일부 계층에 속하는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주의 정책이 경제영역에서 진행되었다. 보수주의적 정치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자유주의적 욕망을 최대한 부추기는 한편 이의 실현을 저해할 수 있는 공공의 원리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였다.

요컨대, 대처의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적 질서 안에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시민권은 시민에 대한 선택과 차별의 구조로 작동하였다. 즉 시민권 내부적으로 개인주의적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시민권 외부적으로는 국민의 평등과 자유의 권리를 차단하는 식의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정치 권력이 ‘보수주의’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시민권 구분의 기준이 기성의 계급적, 인종적, 성적 위계질서를 따랐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러한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정부권력에 의해 고무되고 추진되던, 시민권 영역 안에서 무한 경쟁 원리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에 관한 문제의식은 사회의 조직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낳는다. 시민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의 담론공간이 어떠한 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사회의 조직방식에 대하여, 영국의 사회학자의 리드비터는 1980년대 영국 사회를 지배했던 대표적인 모델인 대처의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좌파의 집단주의(collectivism)가 모두 민주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본다(Leadbeater, 1989). 리드비터의 해석에 따르면, 좌파의 집단주의는 정치적 합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한 결과 개인의 창조성과 다양성을 간과하는 오류를 낳았다. 반면 대처정권의 개인주의는 ‘개인의 선택과 자율에 대한 욕망’을 보장해주는 듯 보였지만, 개인성을 과도하게 강조함에 따라 개인이 사회운영의 주체로서 사회변화의 책임을 떠맡게 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러한 개인화는 ‘사회적 열망, 의무, 책임감의 사유화’를 야기하고 민주주의적 시민권에 대한 사회적 신념을 상실하는 정도로까지 악화된다. 개인적 자유와 주권에 대한 신념은 대신 물질주의적 영역으로 이전되어 최대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개인주의적 소비주의가 민주적 개인주의 원칙을 대체하는 사회지배원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리드비터는 보수주의적 개인주의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시민권’을, 그리고 좌파의 집단주의적 대안으로서 ‘민주주의적 개인주의’를 제안하며 이를 구성하는 핵심적 원리로서 다양성을 제시한다. 사회적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해 일반시민이 사회적 생산과 소비과정 양 측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집단주의의 폐해인 사회적 획일화와 개인주의의 한계인 개인의 원자화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회적 다양화를 위해 생산과 소비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시간, 교육, 공공자산과 같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자산까지도 다양화된 생산, 소비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시권력과 거대권력에 대한 관심이 팽배해지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담론의 사회적 공간에 대한 재인식이 요구된다. 국가권력이 미세화 되어 개인의 육체로 관통된다고 보는, 신보수주의에 대한 비판적 지적에서도 또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수사로서의 세계화 논의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서도 문화의 공공영역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탈락되어 있다.

문화의 시민권이란 문화적 영역에서 작용하는 ‘시민권의 정치학’(Hall & Held, 1989)이다. 어떤 형태의 문화활동은 공공 영역에서 생산, 분배, 소비될 수 있는 반면 다른 형태의 문화활동은 그렇지 못하다. 보수주의적 문화 권력은 타자의 담론이 전입해 들어오는 것에 거부적인 반응을 보인다(내부와 외부간의 경계문제). 한편 공공 영역에서 실현되는 시민들 간의 문화활동이라 할지라도 권력 작용으로부터 완전히 자율적이지 못하다. 형식적인 자유주의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보장되었지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권력지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중심과 주변 문제).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렇듯 복합적인 담론 공간의 특정한 위치마다 고유한 형태의 지배와 저항의 상호작용들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하나의 사회적 담론공간이 획일적인 방식으로 자유화 혹은 보수화되기보다는, 차별과 선택의 정세한 권력작용이 각 사회담론적 위치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구성, 전개,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사회가 일괄적으로 보수화 혹은 자유화 경향을 띠어간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못 선부르다. 대신 사회적 담론 공간 내 구조가 복잡해지고 역동성이 증가한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즉 권력관계들의 작용방식이 다각화되고 입장이 다양해지며 담론의 위치들 간의 접촉과 마찰이 증가해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상응하여 문화지도의 변화속도 역시 급속하게 증가한다. 담론권력 관계가 고착적이거나 단선적으로 변화하기보다는, 다양한 차원의 다중적인 담론들 간의 역학관계가 사회적 공간의 다양한 위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다.

규범적 담론권력과 개별담론 권력들 간의 갈등양상을 담론공간의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투쟁적 공간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담론 공간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담론공간 내 주변부의 개별담론들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고착적인 담론 권력구조를 민주적으로 재편성하는 데에 있어 주변부 담론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 논의하겠다.

#### 4. 담론적 시민권: 소외의 담론적 실천

담론적 권력관계를 공간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담론 권력 관계가 특정한 형태의 공간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마치 물리적 차원에서의 공간 이동이 낯익음과 ‘낯설음(strangers)’(Ahmed, 2000)의 차별 구조에 관련한 정서적, 사회적, 정치 문제를 야기하듯이(호미 바바의 연구를 상기하라), 타자적 담론(즉 낯선 담론)의 출현은 기존의 자연화된 담론질서에 불편함과 위기감을 유발한다.

그러나 담론권력들 간의 갈등과 긴장이, 항상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혹은 담론 권력들 간의 투쟁적인 관계가 특정한 담론질서를 구성하는 ‘조건들(conditions)’이라고 주장한다(Hall, 2001). ‘조건들’은 개별적인 재현 활동들 혹은 재현물들의 구체적인 형태나 내용, 경향들을 결정짓지는 않는다. 대신 재현 활동들과 산물들이 실제 사회에서 쓰이는 방식과 효과에 항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담론들 간의 권력 관계는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산물로서, 그 효과는 일시적이고 가변적이다. 보다 중요하게는, 그 일시적 안정성(temporary stabilization)이 지배담론 독자적인 힘으로 통제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배 질서에 합류되지 않은 ‘외부적 구성요소(constitutive outside)’들에 의해 형성된

다는 점이다. 지배적 담론질서는 그 지배담론이 소외시킨 담론적 요소에 의해 그 정체성이 형성된다. 홀의 예를 인용하자면 서구 대형 박물관의 역사적 정체성은 그 박물관 안에 전시된 제국주의적 획득물에 의해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박물관 공간으로부터 제외된, 제국주의 이면에 가려진 타자의 역사에 의해 재현될 수 있다.

홀의 외부적 구성요소라는 개념이 문화지도를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이유는, 그것이 타자라는 위치가 가지는 담론구성적 힘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타자의 담론은 ‘본래부터’ 생산력을 지닌다. 타자의 담론은, 극복대상으로서의 지배담론을 자양분으로 하여 자라나서 궁극적으로 지배담론에 대한 전복적 구성요소로 작동한다. 타자의 담론은 사회정치적 맥락에서는 지배권력에 종속되거나 소외되지만, 문화담론적 차원에서는 지배담론 형성에 핵심적 영향을 미친다. 타자성은 의미구조의 저층, 혹은 이면을 구성함으로써 표면이 있도록 한다. 결국 지배담론의 존재여부가 타자담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담론 공간에서의 권력관계는 지배-종속의 양립적 관계가 아닌, 다수간의 복합적인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맺어진다. 홀이 지적한 것처럼, 지배적 담론질서가 외부적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고, 지배적 담론질서가 저항적 담론이 구성되는 ‘조건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담론권력들 간 상호형성 과정은 비결정적이며 모호하다. 홀과 유사하게 버틀러는 주체가 담론의 권력 구조에 통제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에 저항하는 담론적 행위를 수행(performative)한다고 보았다(Butler, 1997). 그래서 권력의 효과는 양면적이다. 권력은 사회의 욕망구조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 규제적이지만(주체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동시에 저항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생산적이다. 동시에 주체 역시 이중적인 방식으로 권력과 관계맺는다. 이것은 권력에 의해 호명될 때에 주체가 어떻게 반응할 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즉 주체는 권력의 부름



에 즉시 대답을 함으로써 지배권력이 요구하는 위치를 순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반대로 주체는 지배권력의 부름에 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틀리게 대답할 수도 있다. 주체는 지배적인 담론질서 ‘안’에서 그 권력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저항적 담론을 발할 수 있다. 지배권력을 수행하는 방식이나 그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지배담론권력이 아니라) 개별담론의 주체이다. 결론적으로, 규범적 권력과 개별담론 간에 쌍방향적인 투쟁관계가 성립된다. 개별담론의 주체가 규범적 권력에 대해 종속적이지만 저항적인 담론수행을 하는 것처럼, 권력은 주체와의 관계에 있어 규정적인 힘을 가지지만, 그 권력의 실제적 효과가 주체의 행위에 의해서만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개별담론의 주체에 의존적이다.

규범적 권력과 주체와의 양면적인 권력관계(의존적이며 투쟁적이라는 점) 결과 이러한 권력 관계 안에서 구성되는 주체의 위치 역시 가변적이다. 우선 주체는 지배담론 권력이 규제하는 담론공간 경계선 안에 편입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지되는 담론주체가 될 수도 있다. 혹은 규범적 담론공간 경계선 바깥에 위치하여 사회적으로 인지불가능한 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체의 위치가 공간적으로 가변적이라면, 주체가 공간을 계속적으로 이동해 가면서도 온전하게 취할 수 있는 담론의 궁극적 위치는 결국 그 자신의 육체가 된다. 주체가 자신의 육체로 규범적 권력을 수행하되 반복적으로 그 권력의 획일성을 분산시키고 굴절하여 결과적으로 그 권력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행위를, 버틀러는 저항적인 육체의 담론으로 간주한다. 지배담론이 주체의 육체를 구성한다면, 반대로 저항적인 육체담론은 규범적 권력 속에서 배양된 (규범)문화적 육체의 지배담론적 요소를 제거한다.

버틀러의 저항적 담론수행의 개념은 한국의 사회적 담론 공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개별담론의 위치성에 대한 구조적 분석뿐만 아니

라 담론의 위치에 따라 권력의 육체에 대한 지배양식과 주체의 육체를 통한 저항의 방식들이 다양해진다는 인식이 그러하다. 사회적 담론권력 구조는 지배적 담론권력이 사회주체의 육체에 조밀하게 각인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지배권력에 의해 형성된 육체가 담론공간의 특정한 위치에 자리잡아 지배담론 권력을 저항적으로 수행하여 그 규율적인 힘을 해체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 5. 위치와 움직임

이 장에서는 문화공간을 차별적인 권력관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투쟁의 장으로서 재정의하고 이러한 문화공간의 역학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시각을 제안하고자 한다.

위치와 움직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이 글에서 언급된 몇 개의 문화논쟁 사례를 되새겨보도록 하자. 첫째, 서동진씨의 커밍아웃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담론공간 내부/외부 구조 문제; 둘째, 안티조선운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담론공간 내부구조 분석 즉 중심/주변 구조, 나아가 이러한 이분법들의 극복; 셋째, 일상적 파시즘을 비롯한 문화적 시민권의 담론권력 행사방식 등이 주요 내용이였다. 이 세 가지 담론들은 현재 한국의 문화적 시민권이 처해 있는 상황의 일면들을 보여준다.

커밍아웃은 타자가 담론의 사회적 공간 외부에서 내부로 전입하며 문화적 시민권을 획득하는 행위이다. 경계를 넘어 시민의 영역에 들어섬으로써 문화적 시민권을 획득하고 자신의 정체성(여기에서는 성정체성)을 담론화할 수 있다. 커밍아웃이 허용되는 현상은 과거 보수주의적인 성질서가 느슨해지고 시민권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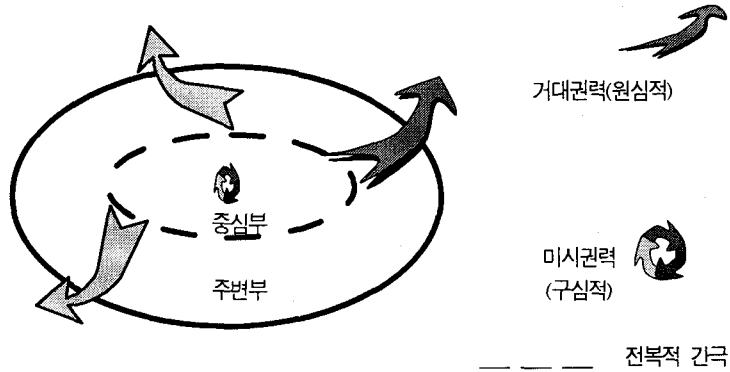
의담론공간 내 이동행위가 미시화된 지배권력 체제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안티조선에 대한 논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층화된 권력집단들의 충돌 공간으로서의 담론의 사회적 공간이다. 안티조선 운동이 반보수주의 담론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형성되었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문화담론 생산-소비 집단이 형성될 기회가 없었던 시민 영역은 안티조선이라는 신생 권력에 성숙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할 담론 주체들의 사회적 '조직'(리드비터의 의미에서의 조직)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집단적인 '성체의 운동'이나 개인적인 '딴지'와 같은 왜곡적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전개된다(이 두 가지 표현은 안티조선 운동과와 안티-안티조선 운동과가 상대방을 비난할 때 쓰여지는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일상적 파시즘은 문화시민권 내부에 작용하는 권력에 대한 인식이다. 일상적 파시즘의 개념은 보수주의적 권력이 그은 시민권적 경계선의 내부, 즉 미시적이고 비가시적인 권력이 심층부에 작용하되 표면적으로는 시민의 자율과 자유가 존중되는 공간을 이해하는 데에는 유용하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가시적이고 직접적이며 차별적인 보수주의적 권력양식을 분석하는 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일상적 파시즘이라는, 개인주의적으로 작용하는 권력에 대해 개인주의적인 저항논리로 대응할 뿐 개인주의 자체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앞의 사례들에서 제시된 비판적 담론들이 가지는 한계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론의 생산과 소비 기능이 문화적 시민권 안과 밖이라는 공간적 분리 구조에 의해 결정되며, 둘째,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이분법이 집단과 개인이라는 범주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셋째, 시민권의 안과 밖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데올로기적 입장으로 양분된다.

앞에서 지적된 이분법적인 논리에 대안적인 사회적 담론 공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분법적 논리의 각 요소들이 교차하는 다차원적인 공간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사회적 담론의 공간구조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담론들이 대화하는 과정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보수와 진보라는 대립구조 대신 다양한 스펙트럼의 담론들이 생산되고 경쟁하는 공간으로서의 문화적 시민권의 정립이 요구된다. 문화적 시민권의 민주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문화적 시민권은 담론의 생산과 소비의 양측면을 보장하는 권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수한 집단의 '시민'만이 담론생산의 권리를 독점하는 배타적 질서로서의 시민권 구조를 지양하고, 사회의 각 위치에서 다양한 담론들이 자유로이 생산되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시민권 정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적 자유주의와 집단적 보수주의, 혹은 개인적 보수주의와 집단적 자유주의 간의 대립양상은 담론권력의 자기팽창욕구가 과도하게 팽창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담론형성을 통한 자기정체성 형성 작업은

본질적으로 타자와의 대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타자와의 대화적 상호작용은 중심과 주변, 내부와 외부라는 사회적 담론 공간의 단절적인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타자의 저항적 담론의 형성 및 성장이 가능한 사회적 담론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미시권력과 거시권력 사이, 자유주의적 환영과 보수주의적 폭력 사이의 공동화된 공간, 혹은 이러한 권력들이 중첩된 공간은 지배담론 권력들의 체계적인 공간관리 질서가 부재하는 혹은 붕괴된 자기모순적인 영역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지점이 바바가 지적한 바 저항적 담론이 성장공간인 ‘전복적인 간극’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인 지점들에서 발생하는 타자들의 담론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버틀러가 지적했듯, 규율화된 권력에 대한 주체의 몸짓은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몸짓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민권의 외부로 추방하지 않고 저항적 언어의 형태로 담아낼 수 있는 탄력적인 사회적 담론공간이 요구되는 것이다.

## ● 참고문헌

- 강내희 (2001). 신자유주의와 자유의 독점. 《비평》, 제6호, 겨울호, 144-166.
- 권경우 (2002). 문화와 혁명은 둘이 아니다. 《비평과전망》, 제5호, 152-171.
- 변희재 (2001. 1. 2). 당대비평이여, 답하라, 《조선일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http://www.jabo.co.kr:52th/52-spel-3.htm>
- 서동진 (2000). 커밍아웃의 정치학을 다시 생각한다. 《당대비평》, 제13호, 351-360.
- 임지현 (2000). 일상적 파시즘의 코드 읽기. 임지현 외, 《우리 안의 파시즘》 (23-48쪽). 서울: 삼인.

- Ahmed, S. (2000). *Strange encounters*. London: Routledge.
- Bhabha, H.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 Brown, W. (1995). Wounded Attachments. In J. Rajchman (Ed.) *The identity in question* (pp. 199-208). London: Routledge.
- Butler, J. (1997). *Excitable speech*. London: Routledge.
- Critchely, S. (1999). *Ethics, politics, subjectivity*. London: Verso.
- Derrida, J. (1998). *Monolingualism of the Other*.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Fuss, D. (1996). *Identification paper*. London: Routledge.
- Hall, S. (2001). *Modernity and difference*.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of Visual Arts.
- Hall, S., & Held, D. (1989). Citizens and citizenship. In S. Hall and M. Jacques (Eds.) *New times: the changing face of politics in the 1990s* (pp. 173-88). London: Lawrence & Wisharts.
- Julien, I. (2001). *The film art of Isaac Julien*. New York: Center for Curatorial Studies.
- Katz, C., & Smith, N. (1993). Grounding metaphor - towards a spatialized politics. In M. Keith & S. Pile (Eds.) *Place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pp. 67-83). London: Routledge.
- Leadbeater, C. (1989). Power to person. In S. Hall & D. Held (Eds.) *New times: the changing face of politics and in the 1990s* (pp. 137-49). London: Lawrence & Wisharts.
- Levinas, H. (1989). *The Levinas reader* (S. Hand Ed.). Oxford: Blackwell.

(최초 투고 2002.3.20, 최종원고 제출 2002.4.25)

## An Analysis of Social Discursive Space: Critique of New Liberal and New Conservative Discourses

Yeran Kim

(Kookmin University)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analysing complexity, flexibility and dynamism of social discursive space.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social discourse is analogous to that of a spatial structure of social discourse. Post-capitalist society has seen New-Liberalism and New-Conservatism have become dominant, resulting in the deterioration of the cultural politics of citizenship. It is argued that the position of otherness, in which those binary structures (inside/outside or centre/margin) collide and collapse, is where subversive discourse can emerge to dominant discursive power.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democratize social discursive space, through which the Other becomes able to participate in the social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social discourse.

Keywords: discourse, space, the Other, politics of citizenship